

피난 생활 보고·避難生活報告 13

3 월 29 일 화요일

지금은 밤 11 시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우리부부는 전도사와 함께 牛久에 살고 있는 사위집을 차로 출발했습니다. 常磐고속도로 북상해서 이와키시에 남은 성도들과 재회하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방사능누출 뉴스를 들어도 여러사정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 가게에 물건이 없어도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러 밖에 나갈 수 없는 분 불안하지만 어쩔수없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레무난트 · R e m a n e n t ?) 입니다.

우리교회의 형제자매는 초대교회의 Diaspora 와 같이 각지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우리들은 스카가와와 병원과 아이즈양로원에 있는 성도를 방문하며 당시 사도바울이 산을 넘어 흩어진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격려의 편지를 쓴 시대를 상상하며 밤 늦게 요네자와의 방주에 돌아왔습니다.

이와키의 집회에서는 80 의 노부인이 현관앞에서 우리들을 마중하며 만나자마자 나의 손을 쥐어주며 '선생님 무엇 보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눈물 짓고 계셨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나고 이미 2 주일이상 경과했는데도 이 토지의 시계 바늘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니 저도 과연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도 생각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신문도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다.아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코앞에 닥친 일로도 벅차서 일까요? 아니면 지진 재해 후유증일까요?

화제를 바꿔서 아내와 저는 거대한 지진 전날에 차로 치바를 향하던 길에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저녁놀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눈앞에서 활활 타 오르면서 팽창해서 타내려왔을 것같았습니다. 그 광경이 하도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비디오로 찍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아내에게 '설마 지진의 전조로 나타난 지진구름은 아니겠지'라고 말했습니다만 설마하던 것이 현실로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20 년 전부터 아내가 성도와 함께 캠프를 하면서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습니다만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그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들은 언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무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상도 서지 않고 모두 어둠속을 손으로 더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회복될거라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면 짓눌림 속에서도 우리들은 참고 견디렵니다.

'너희가 오른 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제 30 장 21 절)의 당신의 말씀대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의 지역만이 지진과 해일 더하여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사고까지 있어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수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때 지진과 해일만이었다면 지금 좀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무너진 집과 기왓장의 산을 치우고 적극적으로 재건에 착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도 된다는 go signature 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침은 지금도 3 월 11 일(금) 오후 2 시 46 분을 가리킨 채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방사능누출이 없었다면 그 때 기왓장 아래에서 아직 살아 있었던 사람이나 물속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 거라고 눈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 나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요? 우리들에게도 다른 피해지역과 같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출발선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면 상점도 문을 열고 자동차정비 공장에서 건설업까지 분주하게 거리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실업자는 늘어날 뿐입니다. 언제까지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계속되는지요? 언제까지 손과 발이 묶인 채 묵묵히 있어야하는지요? 우리들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때를 바라보며 투덜대지 않고 희망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기다리자고 기쁨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어둠속에서 더듬거리며 모두 필사적으로 희망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직 그 때가 아니라면 부디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 강한 인내력을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제어하며 계속해서 희망을 굳게 움켜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드디어 우리들이 지상에서의 여로를 끝낼 때 안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손을 내려 놓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간적으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실연(demonstration)입니까? 우리들은 천국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여행 연습을 정성들여 리허설 · rehearsal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혼로 고독과 싸우고 계셨던 분의 심정이 이제야 진심으로 헤아려집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생의 근본인 가장 중요한 품성을 공부하고 있는중일까요?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격동의 나날 중에서도 어떻게든 일상을 되찾고 싶어 모레는 요네자와를 뒤로하고 關東奧多摩로 키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능누출은 수습될 기색이 보이지 않아 우선 어린이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실직한 사람은 직업을 찾고 집단생활이지만

각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장기전의 임시 거주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을 찾아서기어체인지(gear changing) 합니다. 어디에 가도 임시 거주자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령 그것이 일시적인 일상이라고해도 언젠가 진실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연락처를 시도하려고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피난 생활 보고·避難生活報告 14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다고 이전 페이지에 기술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헤어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3 번째의 키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신세 진 요네자와교회 성도님들이 손수 만든 국수와 과자등으로 대접해 주셨는데 마치 이별 파티인 것 같았습니다. 단 2 주일 묵었는데 궁지에 몰린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셔서 목숨의 은인과 같아 헤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보답할 것이 없어 송구스럽지만 지원 물자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초콜릿등의 과자를 셀로판테이프로 싸서 포장만 거창한 목걸이를 만들어 선생님들의 목에 걸어 드리고 한사람 한사람 감사의 글을 모아 같이 붙여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른「우리러 존경한다」로 바뀐 노래가 끝나고 악수하며 헤어질 때 감회가 복받쳐 훌쩍거리는 분, 통곡하는 모습이 보여 이 상황에서는 제 울보얼굴도 눈에 띄지 않아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지진재해 졸업식의 예행연습은 얼마나 더 계속되는지요.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본 졸업식 때가 되면 눈물이 다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이 좋다고 들었으니 이 때에 50 년분, 일생분 울어 봅시다.

짧은 여행 도중에 우리들의 은인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형제자매들이 별의 수만큼 늘어납니다. 지진재해가 끝나면 내가 생애 사례의 여행을 계속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우리러 존경하는 우리스승의 은혜

가르침의 배움터도 벌써 몇년

생각하면 정겨웠던 이 세월

지금이야말로 헤어질 때 잘가시오

2. 재해의 토지에서도 은혜가 넘쳐

가족이 함께 맞이한 이 좋은 날이여

당신의 작은 손이 그리워지네요

새로운 발걸음에 축복있으라

3. 눈부신 설원 넓게 펼쳐지는 하늘

기도와 미소 그리고 맞아주는 마음들

은혜의 샘물에 몸을 담그니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았네

우리들은 눈의 요네자와를 떠나 잠시라도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관동행을 결단했습니다. 논스톱의 비일상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 가족의 생활 공간과 어느정도의 프라이버시와 안정된 생활공간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억눌리는 심정입니다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결단의 때입니다. 먼 여행 길이라서 나이드신 분이나 몸이 편찮으신 분이 걱정입니다. 주님! 부디 이 무리를 지켜주옵소서.

4 월이후의 연간 스케줄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프로그램이 수첩에 잇달아 쓰여지고 있습니다. 설마 도쿄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항로입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제가 사는 마을과 교회로 돌아가기를 갈급합니다. 이

여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행이 되길, 마지막 통과 지점이 되길 바라며 소형버스와 차로 줄지어 도쿄로 향합니다.

요네자와의 여러분들과 물자를 보내 주신 여러분 니이가타에서 수차례나 반복해서 휘발유와 물자를 수송해 주신 선생님이나 형제자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배후에서 따뜻하게 지켜보시며 기도와 응원해 주신 전국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런 답례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3 월 31 일(목) 오전 6 시 40 분 아키라(彰)

피난 생활 보고·避難生活報告 15

4 월 1 일(금요일)아침 7 시

진심어린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제 저녁 제 4 임시 거주 땅인 도쿄오쿠타마에 있는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설국인 요네자와를 아침 10 시에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진눈깨비가 내렸습시다만 그 후에 날이 개었습니다. 15 일간 체류하며 추억이 쌓인 요네자와를 떠났습니다. 벚나무 피는 봄날 신천지에서 우리들은 잠시 몸을 풀고 안정을 취하겠습니다. 할당받은 방을 둘러보고나서 지역을 돌아보며 학교와 병원과 우체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새로운 장소입니다.

요네자와를 떠날 때 많은 분이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느새 늘어난 각자의 소지품과 전국에서 보내온 쌀, 통조림, 컵라면등등의 공유 물자를 채울 수 있는 한 가득 채우며 언제부터 우리들은 이렇게 욕심쟁이가 됐나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도 '또 하나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백밀러가 보이지 않을 만큼 팽팡한 상태로 차가 부풀어 터질것 같은 무거운 차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 쌓아온 요네자와교회와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 한번의 모습으로 정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낫다는 완전히 본성노출--; 뒤를 아름답게 못하고 오른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차내의 짐이 무너져 차 안에서 생각지 못한 4 차 재해가 발생하고 보도기관이 냄새를 맡고 찾아내어 보도되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한편 만약 앞으로 세번 이러한 대이동을 되풀이하면 우리들은 놀라운 스피드로 대이동가능한 프로 집단으로 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30 분으로 모든 짐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어디든지 여행가능한 「지진 재해가 낳은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보고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만 생각없는 말이 나와 한바탕 웃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제 진심은 대이동은 이것을 최후로 하고 싶습니다. 다음 번은 반드시 내 집으로 가는 감격의 귀환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정말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숨에 종착역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접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여행길에 오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디를 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식사 때는 조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맛있게 조리해 주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옷이나 생활용품 하나에서 열까지 채워주시는 주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곤란중에 구제된 것이 우리들, 이 감사한 마음이 변함없이 생애를 통해 나타내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통조림삼매의 생활에서 등급이 올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맛있는 과자나 식품 재료를 고마운 마음에 남기지 않고 깨끗히 먹어서 인지 요즘 체중이 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오쿠타마는 동북과 비교하면 각별히 따뜻하고 마치 별세계입니다. 목련이나 매화는 이미 꽃이 피어서 편찮으신 분이나 연세드신 분께는 더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경하길 잘 했다는 생각으로 안도하고 있습니다. 고비마다 결단으로 나뉘는 때도 좋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산에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대가족이 50 명이나 되면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린이 교육문제나 구직활동, 편찬은 분들을 돌보는 일등 이 대가족의 24 시간 보호하기 위한 지혜와 결단은 오직 대목자이신 주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임무를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먹을 음식도 덮을 담요도 없이 몸 하나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원점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그 이후로 이 무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해주심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여행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를 경배하며 여행합시다.

우리들은 추웠던 대피소를 떠나 막장밖에 잘 수 없던 상태에서 어느정도 프라이버시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해 비교해 보면 모두가 천국 같은 피난 생활 제 4 막이 열렸습니다. 조용하고 온난한 이 오쿠타마의 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오늘부터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게 되겠지요.

기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난 생활 보고·避難生活報告 16

4 월 8 일 금요일

우리들은 이번 주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7 시에 어린이들은 식사를 하고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첫째날이라 두근거리면서 안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의 긴장이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된 기분으로 사진을 찍고 축복기도를 드리고 ' 잘 다녀와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려 행복합니다.오래간만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같았습니다. 이 순간 마치 지진 재해등이 없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느낌없이 지내던 일상이 이렇게도 사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지진 재해가 가져다준 효과일까요?

4 월 3 일 오쿠타마에서의 첫주일 예배는 70 에서 80 명이 모인 것같았습니다. 도쿄이고 근교에 피난와 있는 성도들도 가족과 함께 서둘러 달려 왔습니다. 이미 서술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의 지진 재해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폐쇄되고 성도가 흩어져 조직도 규약도 연간 프로그램도 임원회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놀려도 밀려도 흩뜨려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전 지진과 해일 재난에 가세하여 몰아쳤던 원전 사고로 선교의 역사도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사람들이 사라진 텅 빈 지역과 함께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70 년에 걸쳐 선교해온 이 지역의 선교역사가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이것조차 현실로 받아들여 성도들의 취직을 돕고 각각 이사한 곳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다른 교회에 소개하며 이 땅에 있어서의 나의 활동도 막을 내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전개는 나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빠듯히 이어나가 이렇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로 흩어지면서도 생생하게 그 살아움직이는 모습 나타낸 기록은 우리모두 신약 성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마 현대 일본동북의 시골에 있는 보통 교회의 성도들이 돌연 갈 곳없는 곳에 내던져져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렇게 체제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이 서로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형성하게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또한 교파를 넘어서 일본 각지에서 세계의 교회에서 우리들을 응원해 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각본인지요. 의아할 따름입니다.

일요일 밤 아내와 저는 '모두 열심히 모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보이던 것 하나 하나가 눈꺼풀에서 벗겨지면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진 재해로 얻은 보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 편 23~24 절

요네자와의 설경을 배경으로 손으로 만든 졸업식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땅에서의 입학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만하나로 집을 떠나와서 입학식에 입고 갈 양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프장 스태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체격이 비슷한 분들을 찾아서는 양복 양장은 물론 와이셔츠 넥타이까지를 맞추어 빌려주셔서 부부 함께 옷을 갈아입고 감사 또 감사의 입학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세대로 구전될 추억거리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지진 재해 이후 감사의 추억을 전할 일이 가속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은혜의 바다에 빠질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어린이들도 지역분들이 재활용 책가방을 주셔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책가방을 등에서 내려놓지 않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타지방에서 온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장에 귀환하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캠프장에서의 취업 설명회에 10 명이나 되는 성도가 참가해 놀랐습니다. 어린이들의 전학관계나 대학수험등을 앞두고 생활터전에 대해 결단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진재해당한 학교가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인지 돌아간다고 해도 전철이 다닐 지등등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지, 이 지역 고교에 전학해야할 지, 돌아가야 할 지, 혹은 통신으로 고교과정을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는 너무 가혹합니다. 모든 곳에 균열과 가족과의 생이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성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디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신 : 이번 주는 교토에 가서 성도의 혼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와 결혼하게 된 그 자매는 '지진 재해를 생각하면 웨딩 드레스가 아닌 상복을 입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인사해서 다시금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진 재해를 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해안끝에 있는 자택이층으로 테트라포트(Tetrapod)가 흘러가고 방풍림 위를 해일이 넘어 오는 것을 직접 보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7

어제 오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만 왠지 슬프게 보였습니다. 슬픔의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뭇해도 마치 슬픔이 유리에 투영된 것같은,,, 모두 슬픔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 재해를 경험한 마음 속의 변화인지요.

어제 슬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던 성도가 해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해안 가까운 국도를 차로 달릴 때 해일이 덮친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이 캠프장에서도 영결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깊은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을 입은 듯이 보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진 재해의 상처로 인한 아픔일까요?

주변에 비치는 모든 세계가 슬픔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지진 재해 직후의 고난주간이라서겠지요.

베드로전서에서 편지를 보낸 곳 중에 한 곳인 현재 터키의 카파도키아(Cappadocia) 지방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동굴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병을 앓아 위독하거나 혹은 돌아가셔서 매장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여행을 계속한 사람들 중에는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괴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행도중에 돌아가시거나 매장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1 개월이상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동물들을 돌보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비일상적인 여행생활이 계속되면 자고 깨서 먹는 일만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상처로 금이 간 유리조각들이 붙어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낙심하기도 하고 작은 충격에도 견딜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상시의 일상도 이전에 초대교회나 애굽을 탈출한 민족들이 거쳐가야

했던 행정인지요. 처형을 목전에 두고 투옥되어있던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 빌립보교회에서 파견된 '에바브로디도'도 여행지인 로마에서 병으로 바울의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전에 누군가가 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상상 못할 주행거리를 흠어진 성도들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몇 번이고 걸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을 위해서 후쿠시마로 보낸 팀은 화장터의 혼잡으로 인해 3일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흠어진 성도를 방문하고 각지에서 집회를 가져 모두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머물고 있는 곳의 성도들을 형제자매가 찾아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본교에게도 기쁨이 되는 뉴스입니다. 고난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 땅에서의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

잠언 25 장 25 절

이번 주 예배는 천국으로 가신 자매를 생각하며 헌화식을 하는 동시에 세례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받고

싶다고 하여 고난 주일에 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재해의 혼란한 상태라서 이전 같은 영결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 못해 손으로 단을 만들어 정성이 담긴 영결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도 높이 외치는 세례식도 합니다. 캠프장 목욕탕을 빌려서 마치 여기가 예전에 예수님이 서신 요르단강인 것처럼,,,

오사카에서 돌아와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신기한 숲의 캠프장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낫게 하시는 것 같이 자연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애하심으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세례식도 참 좋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희망을 찬양하고 앞서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4 월 14 일(목)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8

하루 하루가 성난 파도와 같이 지나갑니다. 지난 주는 앰블런스가 매일같이 들어와 병원에 옮겨지거나 입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달간의 피로가 쌓인 것이겠지요. 개인실이라고는 해도 집단생활과 마찬가지로 내 집과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방문하는 분도 많아 어느새 하루가 지납니다. 어지럽게 들려오는 정보를 흘러들으며 해결해야 하는 코 앞의 일들로도 힘겨운 나날입니다.

오늘 아침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금주에는 다른 가족도 출발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토지에 적응되어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과 교회생활에서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쓸쓸하지만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지난 주는 두 가정의 부부와 또 한사람 전부 5 명이 입주했습니다. 앞으로도 두가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 여행의 짧은 십자로일까요? 마치 심장이 고동치며 폐가 산소를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우리들은 고민과 방향을 하기도 하며, 상처를 안은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해일에 밀려 돌아가신 자매의 영결식과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메시지에서 대정 12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때 작사한 성가 397번 '먼 나라 바다 끝'을 찬송했습니다. 당시 메이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선교사 J. V. 마틴씨가 지진재해로 피난해 온 일본인들 속에서 비추어진 십자가를 노래한 찬송가입니다.

「먼 나라」

1. 먼 나라 바다 끝 한 곳에 사는 백성을 보라

위로의 주 변치않는 주 주의 십자가 빛나리

너 위해 위로하시는 주 우리 위해 위로하시는 주

흔들리는 땅에 서있어도 주의 십자가 변함없이 빛나리

2. 물이 넘쳐 흐르고 타오르는 불길 죽음이 팔벌려 기다리고 있어도

위로의 주 변치않는 주 주의 십자가 빛나리

너 위해 위로하시는 주 우리 위해 위로하시는 주

흔들리는 땅에 서있어도 주의 십자가 변함없이 빛나리

3. 우러러 보면 아무 두려움없고 근심 사라지고 죄도 씻기리

위로의 주 변치않는 주 주의 십자가 빛나리

너 위해 위로하시는 주 우리 위해 위로하시는 주

흔들리는 땅에 서있어도 주의 십자가 변함없이 빛나리

그의 눈에는 도쿄시로가네에 있는 메이지대학교로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모기장
속에 켜져있는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로 비추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사는 백성을 보라. 아득히 먼 바다 저 곳에서 일어난 대지진 재해를
보라. 흔들리는 땅에 서있어도 주의 십자가 변함없이 빛나리.’**

관동 대지진 때 대형화재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강이나 연못에 뛰어들었고 그

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 뛰어든 사람들로 인해 눌러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체는 동경만으로까지 흘러갔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고 타오르는 불길 죽음이 팔벌려 기다리고 있어도 위로의 주 변치않는 주 주의 십자가 빛나리’ 9 월 1 일 도쿄는 아직 더웠고 한순간에 초토화한 마치 전쟁이 끝난 후와 같은 광경 속에서 모기장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그 속에서 촛불이 켜지면서 마치 십자가가 어둠을 밝히고 있을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예전에 마틴씨가 관동 대지진으로 피난한 사람들 속에서 비추어진 빛나는 십자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아낸 것 같이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한 자매는 피난소생활에 한계를 느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이웃교회 성도님을 만난 바로 그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신기할 정도로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게다가 처음만난 목사님이 남편 병실에서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싸고 계신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나 혼자
불안해 움추리고 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는 변함없이 어둠의 세계를 비추시고
지진재해를 당한 우리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잃어버림으로 얻은 것인지요. 많은 것을 잃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고 형제자매가 굳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합니다.

50 세로 해일에 휩쓸려서 천국으로 가신 자매를 생각하며 부른 687 번 성가입니다.

~머지않아 저편에서~

1. 머지않아 저편 강가에서 친구와 기쁘게 만납시다

하나님 곁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서 모두 함께 정답게 모이는 날

2. 수정보다 맑은 강가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곁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서 모두 함께 정답게 모이는 날

3. 은과 같이 빛나는 강가에서 만납시다. 구원의 주와

하나님 곁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서 모두 함께 정답게 모이는 날

4. 좋은 일에 힘써 강가에서 주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시다.

하나님 곁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서 모두 함께 정답게 모이는 날

요한계시록 22 장 말씀에서 하늘나라 광경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의 양쪽 기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있습니다. 또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 장 3~4 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성경구절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찬양하며 나는 마음 속으로 자매는 천국 생명강으로 들려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해일로 그녀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성실한 봉사와 눈물의 기도를 드려온 그녀는 결코 해일에 휩쓸려 지상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고 천국 고향에 흐르는 생명강가로 순시 끌어 올려진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찬양합시다. 찬송가와 성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각각의 인생의 도정에서 차분히 음미하면서 주를 찬양합시다.